

교회목표

- 1. 천국일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0년도 목회 지침 :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

현대의학 윤리의 좌표 제시할

국제기독교의사 및 치과의사회 세계대회 개최

제9차 국제기독교의사 및 치과의사회 세계 대회가 “동방 문화와 성서적 의료 윤리”라는 주제와 “빛은 동방에서 났을 서방에서”라는 표어 아래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개최된다.

이 대회는 네 차례의 주제강연과 수태조절·임신중절·약물남용·장기이식·안락사 등에 관한 분과 토의를 통해, 과학적 의학이라는 미명 하에 인간 상실의 의학으로 타락하고 있는 현대 의학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우리 교회 이종윤 위임목사는 이 대회의 폐회예배에서 “의료선교의 성경적 전략”이라는 설교를 하며 성찬식을 집례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17일(화)	18일(수)	19일(목)	20일(금)	21일(토)	22일(주일)
7:10 - 7:30		기	도	회		
7:30 - 8:30		아	침	식	사	자 유 시 간
8:30 - 9:30		성	경	강	해(손봉호 교수)	
9:30 - 10:30		주	제	강	연	
10:30 - 11:00		강연: 이명수 박사	강연: H. 고트셀 박사	강연: O.T. 구 박사	강연: G. 존스 박사	
11:00 - 12:00	등 록	토	의	토	의	토
12:00 - 2:00		점	심	식	사	
2:00 - 3:30		위	크	술	평	가
3:30 - 4:00		휴	식	휴	식	휴
4:00 - 5:30		위	크	술	폐	회
5:30 - 7:00		자	유	시	간	자
7:00 - 8:00	개	회	예	배	저	녁

“세계선교는 우리가”

'90 아시아선교대회 설명회 가져

충현 가족은 기도와 봉사로 참여해야

'90 아시아선교대회(AMC) 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오후 6시 30분부터 우리 교회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아시아 복음주의협의회 임원이며 AMC 대회의 실행위원인 M. 카스탈로 박사, A. 예오 목사, 조수아 쓰다다 박사, 정진경 목사 등 34개 교단의 교단장과 교단 총무 및 선교위원장, 그리고 언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 및 기도회를 가졌다.

이 모임은 김경래 장로(본 대회 협동총무)의 기도와 김준곤 목사(본 대회 준비위원장)의 설교로 예배를 드린 후, 이종윤 위임목사(본 대회 준비위원장)가 선교대회의 개요와 준비상황을 설명하였다.

이 모임에서, 카스탈로 박사가 예오 목사, 쓰다다 박사는 인사말을 통해 아시아선교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장소 및 제반 사항을 협력해준 충현교회에 감사한다고 했다.



한편 '90 아시아선교대회 충현교회 운영본부에서는 이 선교대회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정기모임과 기도회를 갖기로 하였다.

먼저 각 분과장과 지도는 매주일 오후 3시 30분에 선교관 401호('90 아시아선교대회 준비위원회 본부)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8월 20일부터 매일, 새벽 기도회가 끝난 후에는 각 분과장, 지도, 부지도가 본당 203호에 모여 기도

회를 하며, 8월 8일 수요일 11부 예배 후와 26일 찬양예배 후에는 베다니홀에서 각 분과 전체 기도회를 갖는다.

운영본부 측은 이 대회에 참가하는 26개국 2천여 명의 아시아 선교사들의 안내를 맡을 외국인 자원 봉사자들과, 대회가 열리는 8월 27일부터 4박 5일 동안 민박을 제공할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과 진리로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목회자로서 충현의 가족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사회 개혁에 앞장서면서 홍해작전을 성공적으로 끝낸 충현의 가족들은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목회자 세미나 종강이었던 날 또 한 번 멋진 봉사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일들을 말하면 자랑스러운 것 같아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크고 작은 행사 때마다 몸을 던져 헌신하시는 모습은 정말 놀랍고도 귀한 것이지요.

17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국제 기독교의사 및 치과의사회 세계대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되고, 오는 8월 27일부터 31일까지는 '90 아시아선교대회가, 그리고 11월 첫주부터 열흘간은 동구권 목회자 초청 세미나가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짐으로 생각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으니 많은 일을 명령하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8월에 있는 '90 아시아선교대회시에는 2천여 분의 목회자 또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오시게 되는데 숙박 문제가 큰 기도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약 400명 정도의 손님은 민박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이를 성도들에게 광고하고 신청을 받고 있지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호응이 없이는 대사를 그칠 수도 있어 여러분께 이렇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5일 정도 방한을 주님의 종을 위해 내어 놓으시면 선지자를 대접한 가정에 선지자의 상이 있을 것이니 복 받으실 일에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억지로 되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90. 7. 15
이 중 윤 목사

농촌 복음화 위해 나를 보내소서

'90 농어촌 하기 전도대 파송기로

전도위원회는 올해에도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4박 5일 동안 하기 전도대를 파송기로 하였다.

예를 위해 21일 오후 4시부터 베다니홀에서 이종윤 위임목사와 김광석 목사를 강사로 하여 전도대원 훈련 및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29일 저녁 7시 찬양예배 때는 파송예배를 드린다.

올해는 “구원은 오직 예수, 전도는 나의 사명”이라는 표어 아래 9개 전도대 100여 명의 대원을 파송하는데, 김창수 목사, 최인근 목사, 김은태 목사, 정계봉 목사, 김동열 목사, 송태근 목사, 김영규 목사, 김광석 목사, 김해규 목사 등 모두 9명의 교역자가 전도대원들과 함께 파송되어 농어

촌 전도를 위해 수고하게 된다. 파송 지역은 강원도의 용산교회, 동성교회, 천곡교회, 미산교회, 충청남도의 대광교회, 가곡교회, 전라남도의 봉곡교회, 경기도의 내오리교회이며, 파산과 부산지역에서는 병원 순회 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하기 전도대 파송은 복음화된 통일 조국을 앞당기기 위해, 미자립 농어촌 교회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결신시키고, 파송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 주기 위한 것이다.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전도대원들은 파송지역 교회의 교우들과 협력하여 낮에는 축호전도를, 저녁에는 부흥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 중 윤 목사

성경 강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지식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나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는지...”(요 9:18-34)

인간은 크든 작든, 많은 적은 나뉠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지식사회로 많은 사람이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활용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평생 동안 영원한 말씀인 성경을 배웠으니 누구보다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딤후 1:12). 우리는 우리의 구주가 살아 계시다는 것(요 19:25)과 우리 자신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요 3:14).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롬 8:28).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요일 3:2).

지식의 한계를 인식하는 겸손 필요

우리의 지식은 원자나 분자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지식이 아니라 누구도 소홀히 할 수 없고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다. 지식은 가졌으나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지식에 자신을 완전히 던질 만한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방해되는 지식입니다. 본문에서 지식 문제로 고민하는 몇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지식의 양상들

첫째, 소경 부모의 한심스러운 지식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었던 자의 부모에게 거짓말로라도 그들의 자식이라고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만약 그 소경이 그들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건은 한 순간에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은 부모는 고침을 받은 소경이 소경으로 난 그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뜬 원인은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요 9:20, 21). 자기 아들이 눈을 뜨게 된 경위를 아들로부터 혹은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모른다고 했으니 불행한 일입니다. 이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요 9:22). 소경의 부모들은 예수가 메시아시라는 주어진 지식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한, 그래서 고의적으로 없애버리려고 자기 기억 속에서 망각시키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둘째, 바리새인들의 두려운 지식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다가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부모로부터 결정적인 말을 듣지 못하자 소경이었던 자를 불러서 다시 문초하며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의롭고 가장 진리편에 서며 가장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다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요 9:24)라고 하며 부모로부터 무슨 증거라도 얻은 것처럼 뒤집어 얘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지식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지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면에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진리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는 고의적인 방해였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하여 소란하게 전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내모든 것을 던질 만한 확신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 눈을 뜬 사람의 구원에 이른 지식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람의 지식은,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인지는 모르나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신 분임에는 틀림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입니다. 질문자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더 이상 말을 안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인과 논쟁할 만한 그런 처지도 아니고 그런 지식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인 못한 지식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유한한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를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죄 용서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된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소경은 처음부터 자기 지식의 한계성을 알고 있었으므로 겸손하였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배풀어 주시는 그 은총과 역사를 통해서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와 죄에서 출발한 존재들입니다. 영적으로는 마치 앞을 볼 수 없었던 소경과 같

이 전혀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제한된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지식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소경이었던 사람은,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요 9:30). 영안이 뜨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을 보면 무지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진정한 지식인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식으로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눈은 뜬 소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요 9:31)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안다고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연구하는 사람은 박사 학위 열 개를 가진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영적 지식을 소유해야

소경이었던 사람은 지금은 내가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시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그 개혁의 과정은 결코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좌절하기도 했고 중도에서 포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의 부인이 감정 싸움을 일으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깜짝 놀란 루터의 반응에 루터의 부인은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왜 절망합니까.”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새로운 용기를 얻은 루터는 다시 일어나 힘을 다해 승리의 깃발을 들고 종교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과오를 범할 수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야 합니다.

2. 회개하지 않는 자의 마지막 길

첫째,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요 9:34)

당시 유대인들은 눈을 뜬 소경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잘못했소.”라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진실을 듣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둘째,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그의 기적을 갈라 놓습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은 부인하지 않았으나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그리스도를 구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셋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법을 주셨다는 이유로 이 전통에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습관과 전통에 호소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법이나 정당성에 호소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에 호소하는 곳입니다. 신약 교회는 은혜 중심의 교회입니다.

넷째,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진리를 전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출교시킵니다. 교파가 갈리고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일은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3. 돌아온 자의 길

첫째, 돌아온 자의 길은 순종하는 길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적은 지식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회생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가 가는 길이 아니라면 자기의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양보하는 자입니다.

둘째, 돌아온 자는 예수님의 권능을 확신합니다. 투쟁적인 확신을 가진 이 눈 뜬 사람은 부모도 도망갔으나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기의 눈을 뜨게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투쟁적인 확신입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라며 더욱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려고 하는 확신입니다. 쫓겨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돌아온 자, 주님의 백성의 신앙입니다.

■ 탐방 - 상담실

고통과 슬픔을
반으로

기도로 문제 해결 도와

인간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죄의 상태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과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벌써부터 이두란 전도사와 정소영 집사를 상담원으로 임명하고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실에서는 성도들의 신앙 문제 뿐 아니라 일상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성경적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상담해주고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상담실을 찾은 성도들은 모두 218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그리고 내담자들이 안고 찾아오는 문제들은 상담실을 찾

은 성도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다. 그 가운데서도 주로 상담을 요청해오는 문제들은 신앙, 성경, 교회일, 교파, 가정, 자녀, 결혼, 건강, 구제 요청에 관련된 것들이다. 노사간의 갈등이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는 요즘,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상담실을 찾는 성도들도 있다고 한다.

구제 요청이 있을 때는 교회 차원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연결시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있다.

이두란 전도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그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만 말고 용기를 내어 상담실로 찾아와와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간증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

정영례 집사

어느날 갑자기 친정 아버님의 부음을 받았다. 아버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 한없이 울었다. 한참을 울고 있노라니 문득 찬송가 439장 "만세반석 열린 곳"이 생생하게 입에서 터져 나왔다.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찬송을 하며 아버님의 수의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다짐 아래 기쁨이 충만하여 전도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마음이 몽게구름처럼 일기 시작했다.

많은 친지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외쳤다. 그런중 70세로 홀로 살고 계신 친정 고모님께 전도하기 시작했다.

한참을 같이 얘기를 나눈 후 고모님께로부터 예수님을 믿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며칠 후 고모님으로부터 "나는 그냥 원불교에 다니겠다. 종교는 바꿀 수 없다."라는 편지를 받았다. 나는 남편에게 고모님을 전도하려 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남편은 단호히 거절하였다. 나는 무척 실망하였다.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전송해 주며 적려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남편의 말을 거역해본 적이 거의 없었지만 그때만큼은 순종할 수 없었다.

남편 승락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 기도하였다. 고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분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다짐만을 반복했다.

고모님댁에 도착해보니 고모님은 술에 취해 누워 계시면서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만 하시며 울고 계셨다. 나를 보시고는 반가워 하셨지만, 내가 내려온 이유를 들으시고는 안색이 곧 변해졌다. 그러고는 아버님만 한번 더 보게 된다면 원이 없겠다시면서 또 울기 시작하셨다. 나는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오셔서 예배드려주시기를 목사님께 부탁드렸다.

다음날이 되어 목사님이 찾아 오셨다. 고모님은 목사님을 보고 선 필적 뛰시면서 다 필요없으니 돌아가라고 했다. 그러나 나의 계속적인 설득에 방까지 들어오게 되었다.

예배를 드리려고 성경과 찬송을 고모님에게 드렸더니 나는 글도 모르니 교회에 다닐 수 없다시며 너나 가지고 가라고 하셨다. 그때 고모님이 잘 아시는 권찰님도 옆에 함께 계셨는데 그분은 이곳에서 그리 똑똑치 못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분이셨다. 그분이 고모님에게 가서 "나 같은 바보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 찬송도 외을 수 있다."며 찬송가를 3절까지 부르셨다. 그런 놀라운 일을 보시고 고모님은 좀 누그러지셨다. 고모님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 인도할까 하는 궁리 끝에 전화를 놓아드리다보면 목소리를 통해 믿으

실 것 같아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며 그러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고는 다음주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닐 테니 마음 놓고 빨리 올라가라고 하셨다.

마음을 돌리신 고모님을 보니 기뻐으나 남아 있는 우상들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고모님께 우상들을 모두 없애야 한다고 했다. 고모님께서도 집안 여기저기에 놓아 두었던 우상들을 모두 내어주셨고,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심, 너무너무 감사했다.

집에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남편에게 전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무표정이었다. 마음을 몰라주는 남편이 야속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남편에게 아직도 내가 미우냐고 했더니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 순간 나는 속상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남편을 통해 저를 담대케 하시고 훈련시키신 주님의 섭리를 말이다.

슬픔이 많은 나날들이었으나 기쁨으로 점점 변화된 요즘은 고모님께 용돈도 보내드리고 자주 찾아 뵈고 있다.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며 학습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고 계신 고모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다.

멕시코 선교에
헌신할 분을 찾습니다

미국 총현선교교회 (로스엔젤레스 소재, 장상우 목사 시무)는 멕시코에 파송할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영어나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성도로 멕시코 선교에 뜻을 가지고 헌신할 분은 선교위원회 사무실(선교관 406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기통

영혼의 고결을
위해 기도를

김동열 목사

만물은 자기 나름대로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슴에게는 가볍게 뛰어 온 산간을 누비고 싶은 욕구가 있고, 소나무에게는 창공 가득히 가지를 뻗으며 자라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이런 욕구가 없다면 인류는 퇴보하고 문화는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적으로 미숙하고 육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욕구마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부를 받아 지도해 오면서 말도 잘 못하고 행동은 부자유하여

마음껏 뛰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를 갖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발음은 똑똑치 않으나 찬송을 부르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영혼의 욕구를 보게 되며, 교사들에게 안겨 어리광을 부리는 것을 볼 때면 사랑받고자 하는 강한 정신적 욕구가 있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울동 시간에 움직이는 그들의 몸짓 속에서 마음껏 뻗어 성장해 보고픈 육체적인 갈구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학교에서 사랑부를 맡아 지도하는 자로서는 더욱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욕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충족시켜 줌으로써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마저 느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조전적인 수용과 공감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하여 그들이 사랑을 믿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게 함으로 영적으로 성숙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많은 것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15, 6 세가 된 장애인도 유치부 정도의 설교밖에 들을 수가 없지만 이 단편적인 지식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영혼이 고결해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독실해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사랑부의 모든 교사들이 기도와 사랑과 희생으로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던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 모두가 이들에게 참 사랑과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기도는 물론 교회에까지 태우고 올 차량과 운전 기사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필 성도들의 봉사가 더욱 시급히 요구됩니다. 금년들어 사랑부에서 55명의 학생에 45명의 교사가 봉사했으나, 지금은 78명의 학생에 59명의 교사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고 괴로운 봉사이지만 생각해 보면 이들의 팔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주는 이 일은 곧 주님의 팔과 다리가 되어드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온 교회가 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피고 키워 줄 때에 총현교회 부흥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배전의 기도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호 세기통은 윤용규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신앙 점검의 기회 가진 대학부·장년3부



찬양을 통해 마음을 여는 대학부 학생들



장년3부 회원들은 이번 계절학교를 통해 성도교의 경건생활을 배울 수 있었다.

대학부는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4박 5일 동안 충현기도원에서 여름 계절학교를 열었다.

이번 계절학교는 “지금의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표어 아래 대학부의 영적 각성과 공동체 의식의 함양, 전도와 봉사의 생활화를 위한 것이다.

정기봉 목사의 강의 “영적 갱신의 역사적 흐름”이나 성주진 강도사가 인도한 부흥회는 회원

들로 하여금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 회원들은 상황에 따른 전도 방법에 대한 워크 샷을 가진 후 인근 마을과 공장으로 전도를 나가는 시간을 가졌다. 또 그룹성경공부와 선택 강의는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재수생과 대학부’, ‘이성교제’, ‘선한 사마리아인’ 등을 다루어 신앙과 현실을 연결하는 순서였다.

한편 장년3부는 “성도의 경건

생활을 훈련하자”라는 주제 아래 7월 12일과 13일 이틀간 갈릴리홀에서 제12회 여름계절학교를 가졌다.

강사는 장년3부 지도 목사인 윤영탁 목사와 오덕교 목사로 강의와 저녁 부흥회를 은혜롭게 인도했다. 또한 과별 찬송가대회와 찬양 및 간증의 시간, 양재 시민의 숲에서 있었던 성도간의 친교를 위한 각종 경기를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94년 세계대회 서울 개최 움직임

AD 2000년 운동(총재, 토마스 왕 박사) 기획위원회는 내일부터 이들 동안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94년 세계대회 개최지를 확정 짓는 중요한 회의를 갖는다. 지구상 각 대륙에서 추대된 7명의 기획위원들은 한국의 서울

을 제일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우리 교회 이종윤 위임목사는 기획위원의 자격과 서울대회 유치에 대한 책임을 맡고 16일 오후 출국하게 된다.

학원전도회 《모으리 나누리》발행 청소년 상담도 실시



우리 교회 학원전도회(차장 안병호 집사)는 학원 전도의 일환으로 《모으리 나누리》라는 소책자를 발행하고 적극적인 전도 활동에 들어갔다. 이 책에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글이 골고루 실려 있어 학원 전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리라 예상된다.

학원전도회에서는 《모으리 나누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성도들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다. 성도들은 학생, 교사, 학부모의 입장에서 청소년들의 신앙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험담(2백자 원고지 10매 내외), 수필(2백자 원고지 3매 내외)을 보내어 학원 전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학원전도회의 교육상담부는 청소년들의 고민 상담을 위해 사무국 앞 게시판, 식당 계단 옆 게시판, 갈릴리홀 입구 게시판 등 세 군데에 상담신고함을 설치했다.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고민을 서신으로 보내면 현지 교사들로 구성된 교육상담부에서 서신이나 전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해줄 것이다.

스데반회·루디아전도회 목회자세미나 수강생 위해 봉사

스데반회와 루디아전도회는 지난 7월 9일 10주 동안의 모든 학사 일정을 마치고 종강한 제5학기 목회자세미나의 수강생 979명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했다.

교회 갱신과 부흥을 위해 재교육을 받으며 수고한 전국 교역자들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여전도회 연합회 반석교회에 건축헌금 드려

우리 교회 한나·에스다·루디아·마리아전도회는 육군 제3609부대 내에 있는 반석교회가 예배당을 신축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군 복음화를 위하여 건축헌금을 하

기로 결정했는데, 7월 6일 우리 교회를 방문한 부대장 정성남 중령에게 이종윤 위임목사가 여전도회를 대신하여 2백만 원의 건축헌금을 전달했다.

교수선교회 7월 월례회 가져

교수선교회 7월 월례회가 지난 7월 6일 저녁 7시 갈릴리홀에서 개최되었다.

17명의 교수 부부가 참석한 이번 모임의 1부에서는 박영희 협동목사(총신대학장)의 “새 생명의 근거한 직설법과 명령법”이란 설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책임을 다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

이어 2부에서는 본 회 회원인 이관섭 교수(배화여전)가 “교회 음악의 이해”를 발표하여 회원들의 교회음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유치부 어린이 소망부 위로잔치 열어

지난 7월 8일 주일 오후 1시에 유치부 학생들이 갈릴리홀에서 집회를 갖고 있는 소망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 뵙고 즐거운 한때를 가졌다.

유치부 학생들은 한복으로 곱게 차려 입고 열심히 연습한 무용과 찬양을 불러 관람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렸다.

유치부 부장 정광호 장로는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노인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원한다며 5~6세의 손자들을 둔 성도들은 그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될 수 있도록 유치부로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과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좋지 않게 여기는 것과 이웃에 속한 어떤 물건에 대한 모든 부당한 행동과 감정입니다.

설 명

제10계명은 자기 처지에 대한 만족과 감사, 그리고 자신과 이웃의 가정을 보존할 것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하여 늘 불만을 가지거나 이웃의 가진 것에 대하여 시기, 불평, 탐욕을 품어서는 안됩니다.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주신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훈련을 통하여 자족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웃에 대하여 항상 옳고 사랑스런 마음을 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 문

1. 탐심은 무엇과 같다고 하였습니까(골 3:5)?
2. 제10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왕상 21:23~25; 잠 14:30; 눅 12:16~21; 약 3:16)?
3. 어떻게 하면 제10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새 62:10; 고후 9:7, 8; 빌 4:11, 12)?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29 과 제10계명

성경: 딤후 6:6~10

요절: 저희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눅 12:15)

찬송: 532, 589

제 79 문 제10계명은 무엇입니까?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 80 문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하며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제 81 문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